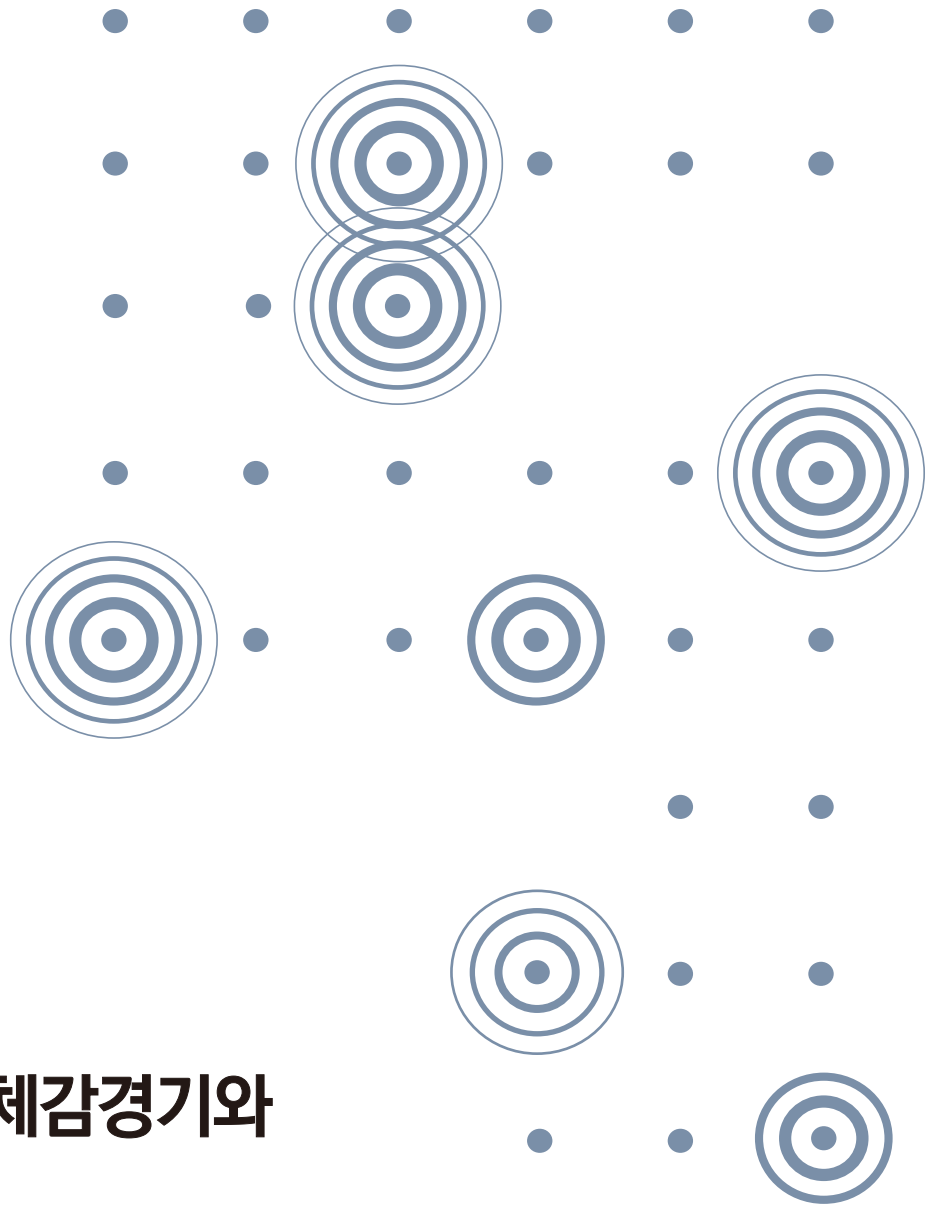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321호 2021. 4. 5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보복소비

오은주
연구위원

유인혜
연구원

—————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321호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보복소비

발행인 유기영

편집인 양재섭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1년 4월 5일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보복소비

오은주 연구위원
02-2149-1037
ejoh@si.re.kr

유인혜 연구원
02-2149-1073
inhye215@si.re.kr

요약	3
Ⅰ.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Ⅱ.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보복소비	18
부록: 2021년 1/4분기 주요 조사결과	24

요약

서비스업 생산은 상승 유지, 제조업 생산은 하락 지속

2021년 1/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20.3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하였다. 「제조업생산지수」는 79.4로 전년 동월 대비 크게 하락(-12.4%)하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12.8%를 기록하였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모두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지만, 2021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5.3%, -6.3%, -4.7%를 보이며 모두 하락하였다. 2021년 1월 중 서울의 전체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보다 3.9% 감소한 489만 3천 명이며,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2.8% 감소한 83만 7천 명을 기록했다.

서울시민 체감경기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1년 1/4분기 89.0으로 전 분기 대비 0.4p 하락하였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2.9p 하락한 72.9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2.1p 상승한 96.0을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3.4p 하락한 46.6,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7.8p 상승한 86.5로 조사되었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98.0으로 전 분기 대비 2.0p 상승하였고,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0.5p 상승한 85.6을 기록했다.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와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각각 3.6p, 2.0p 하락하였다. 「순자산지수」는 전 분기보다 4.0p 상승했고 「고용상황전망지수」, 「물가에상지수」도 전 분기보다 4.9p, 1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1/4은 보복소비 경험, 주요 소비 분야는 ‘음식’과 ‘전자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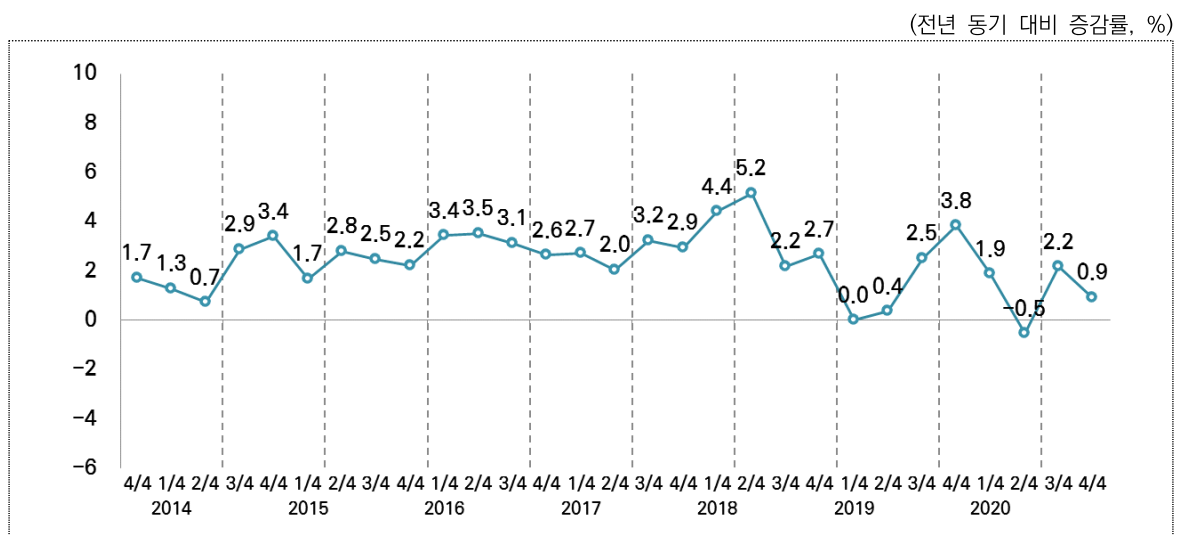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따른 보복소비 경험에 대해서 서울시민 4명 중 1명은 ‘경험이 있다’(24.3%)고 응답하였다. 보복소비를 처음 했던 시기로 ‘2020년 4분기’(30.2%)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보복소비 분야(1순위 기준)는 ‘음식(건강식품, 식·음료)’(44.0%), ‘전자기기’(20.3%), ‘명품패션/잡화’(13.1%) 순으로 조사되었다. 보복소비 무경험자의 10.1%가 앞으로 ‘보복소비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소비 분야로는 ‘국내외 여행’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보복소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우울해진 마음에 대한 보상 심리’가 36.4%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복소비에 따른 영향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긍정’(41.6%)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반면, 가계 경제에는 ‘부정’(50.9%)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I 서비스업 생산은 상승 유지, 제조업 생산은 하락 지속

2020년 4/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9% 증가

- 2020년 4/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20.3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
 -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23.8%)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그다음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8.0%), ‘부동산업’(7.7%) 순으로 증가, 그 외 업종의 생산지수는 감소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49.3%를 기록해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운수 및 창고업’(-28.8%), ‘숙박 및 음식점업’(-23.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3.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4%) 등 순으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조사
- 2021년 1월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79.4로 전년 동월 대비 12.4% 하락
 - 「제조업생산지수」는 2021년 1월 전년 동월보다 12.4% 감소한 79.4를 기록하여 최근 4개월 동안 유지해온 80대 수준에 못 미쳤으며, 2년 가까이 마이너스 지속
 - 2021년 1월 기준,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12.8%로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전 분기(-18.1%) 대비 하락 폭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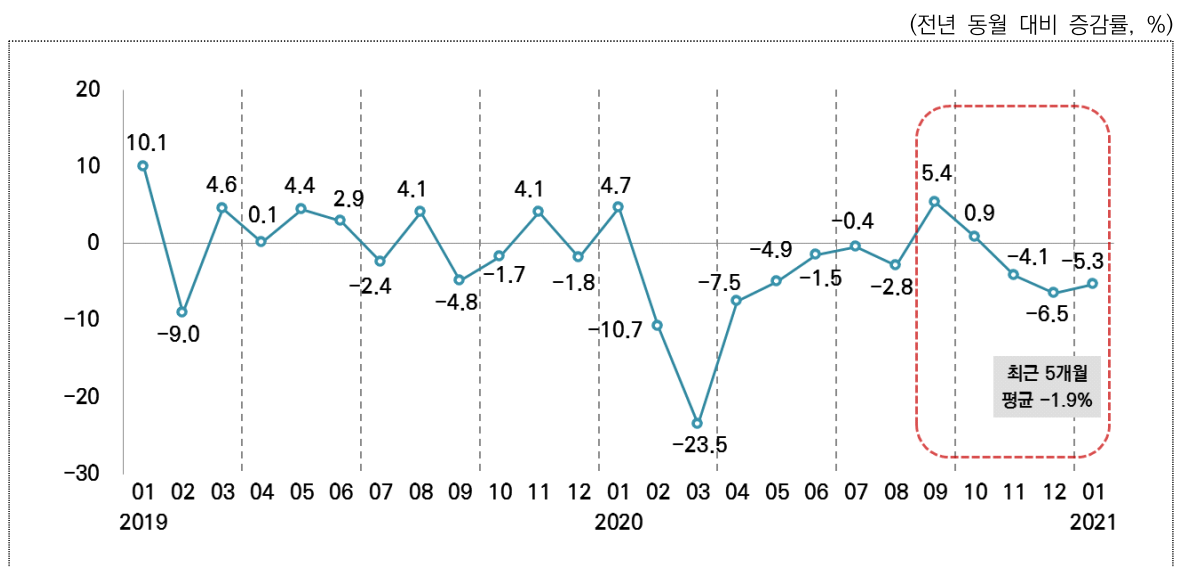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불변지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¹⁾

1) 2019년 1월 공표 시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른 최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계절조정 작업으로 2000년 이후 시계열이 변경되었음.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음

2021년 1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3% 하락

- 2021년 1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²⁾는 101.0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 하락
 -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1.0으로 2020년 9월부터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2020년 11월부터 연속 감소세를 유지
 -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전 분기(0.3%)보다 하락하여 -1.9%를 기록
- 부문별로 보면, 1월 중 「백화점 판매액지수」,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모두 기준치 100을 상회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모두 하락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100.4로 전년 동월 대비 4.7% 하락하면서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폭도 확대되면서 -5.7%를 기록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101.9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6.3%로 나타났으나,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최근 5개월간 평균 증감률은 6.2%를 기록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백화점 판매액지수」,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모두 기준치(100)를 상회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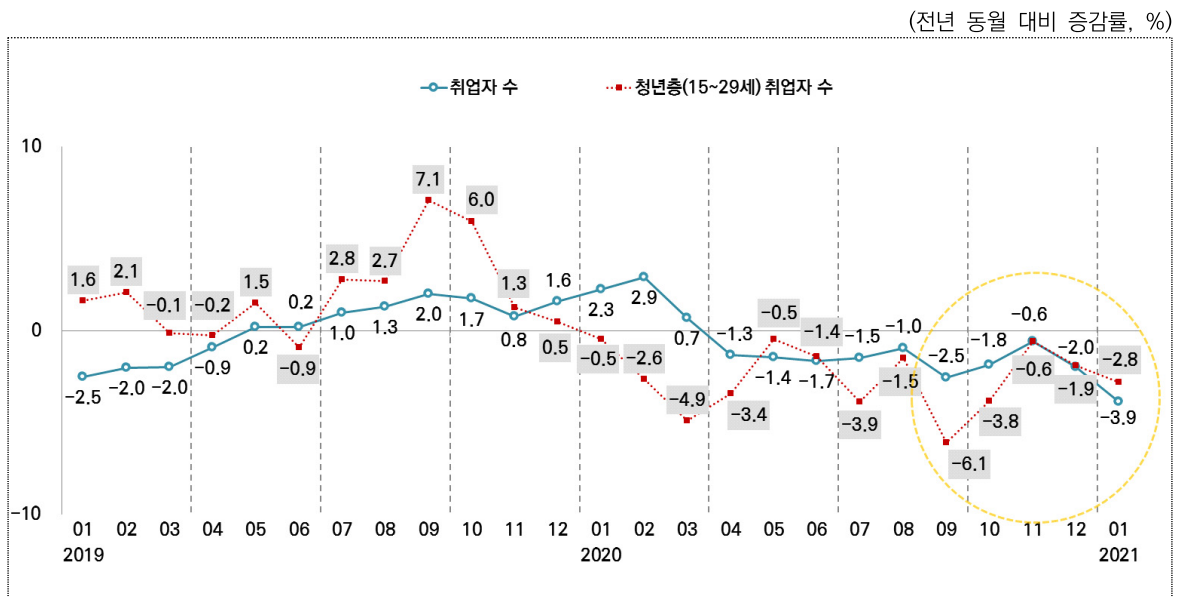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비롯해 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모두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뀌면서 변경 이전의 수치가 바뀌었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0년 기준에는 대형마트에 대형할인점, 면세점, 아울렛 등이 포함되었지만, 2015년 기준부터 대형마트에서 면세점과 아울렛이 제외되었음

전체 취업자 수와 청년층 취업자 수 모두 감소, 전체 취업자 수는 2016년 이후 최저치 기록

- 2021년 1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³⁾는 전년 동월(508만 9천 명)보다 3.9% 감소한 489만 3천 명으로 2016년 이후 최저 기록
 -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9% 하락한 489만 3천 명으로, 2016년 10월 이후 최저치
 - 전년 동월 대비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1월 감소 폭이 -3.9%를 기록하면서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2.2%를 기록
- 2021년 1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86만 1천 명)보다 2.8% 감소한 83만 7천 명
 - 「청년층 취업자 수」는 83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하며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월 이후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 「청년층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하락 폭은 전체 「취업자」보다 작은 반면,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전체 취업자 수보다 큰 -3.0%로 조사
- 전월 대비 2021년 1월 「취업자 수」와 「청년층 취업자 수」 모두 감소
 - 2021년 1월 전체 「취업자 수」는 489만 3천 명으로 전월 501만 6천 명보다 12만 3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월(83만 8천 명)보다 1천 명 줄어든 83만 7천 명으로 조사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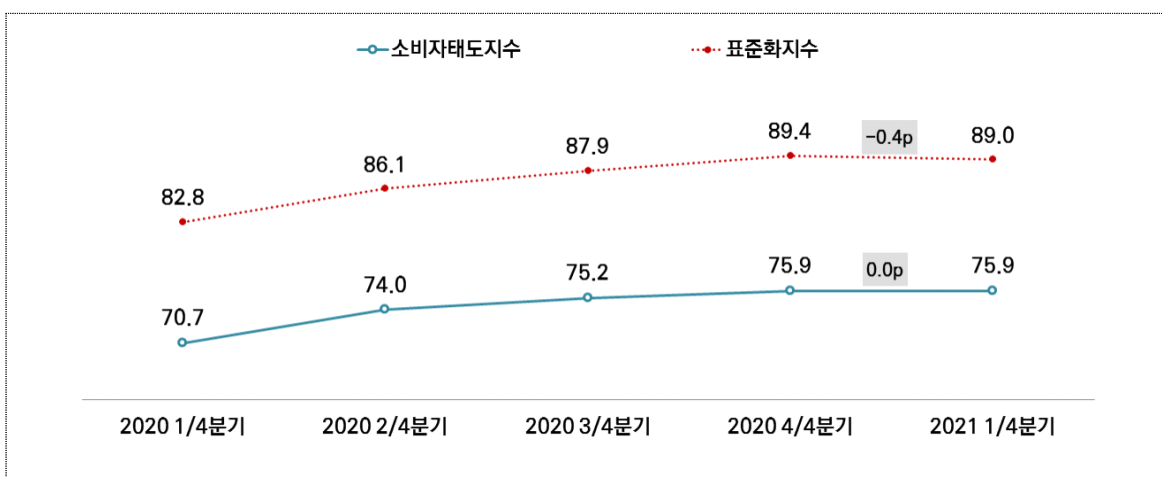
3) 고용통계는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음

II.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I 서울시민 체감경기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하락

1/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와 동일

- 2021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⁴⁾ 기준 89.0으로 전 분기 대비 0.4p 하락
 - 「소비자태도지수」의 표준화지수는 89.0으로 2020년 1/4분기에 최저점을 기록한 후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올해 1분기 들어 주춤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5.4p)가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하락한 반면, 7,200만 원 이상 가구(2.6p)는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전 분기 대비 1.7p 내려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50대는 4.1p 올라 가장 많이 상승
- 올해 서울시민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코로나19 발생 전 90대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소비자태도지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1/4분기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상승을 이어오다가 올해 초 소폭 하락
 - 하지만 지난 2월 코로나19 국내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영업 제한이 다소 완화되고, 기저효과도 작용하고 있어 2021년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코로나19 발생 전 수준인 90대까지 회복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
 -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경기 회복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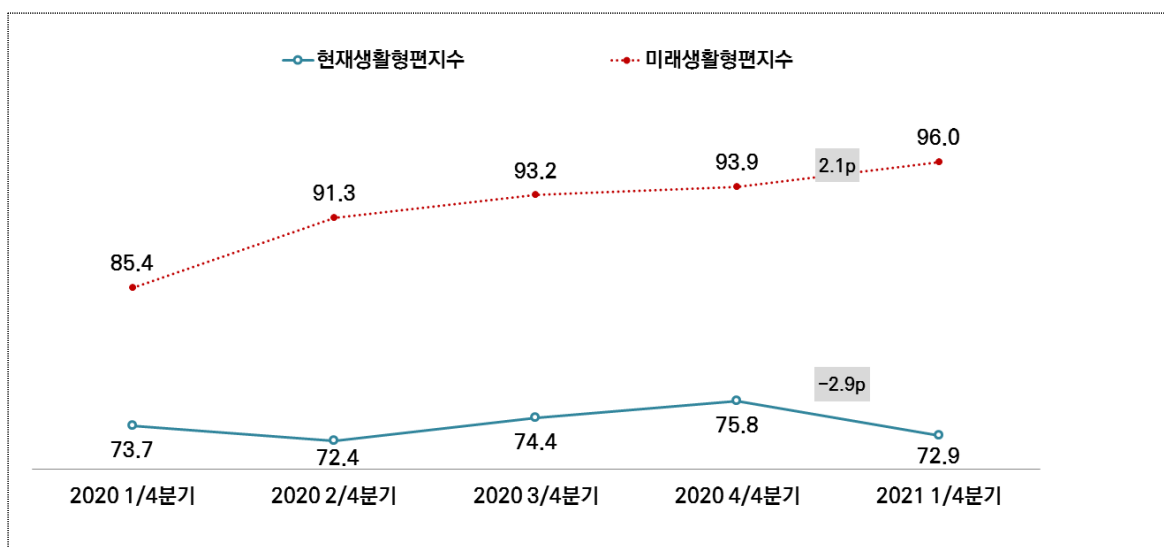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4)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임. 연도별로 조사되는 시계열의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구함

전 분기 대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하락, 미래생활형편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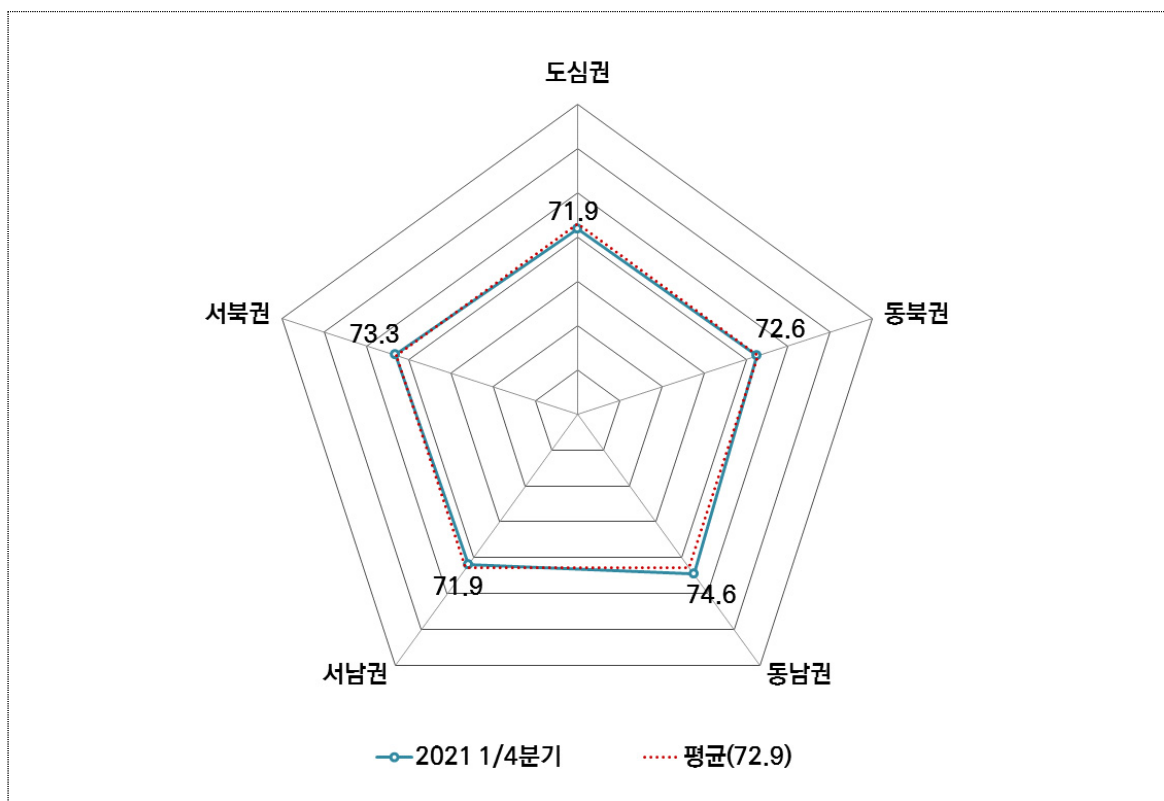
- 2021년 1/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2.9p 하락한 72.9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2.1p 상승한 96.0을 기록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72.9로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 1/4분기부터 70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세
 - 소득계층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연 가구소득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7.2p)와 2,400만 원 미만 가구(-7.0p)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연 가구소득 4,800~6,000만 원 미만(5.7p)에서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별로는 60대에서 「현재생활형편지수」가 전 분기 대비 8.1p 내려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 50대는 「미래생활형편지수」에서 5.0p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
-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개선될 것으로 본 주된 이유 1순위는 ‘가계소득 증가’
 -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개선될 이유로 ‘가계소득 증가’가 45.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18.1%), ‘막연한 기대감’(9.6%), ‘지출비용 감소 예정’(9.2%) 등의 순으로 응답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소득 증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400만 원 미만 가구는 ‘막연한 기대감’(28.6%)이, 7,200만 원 이상 가구에서는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26.8%)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계소득 증가’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동남권이 높지만 모든 권역이 비슷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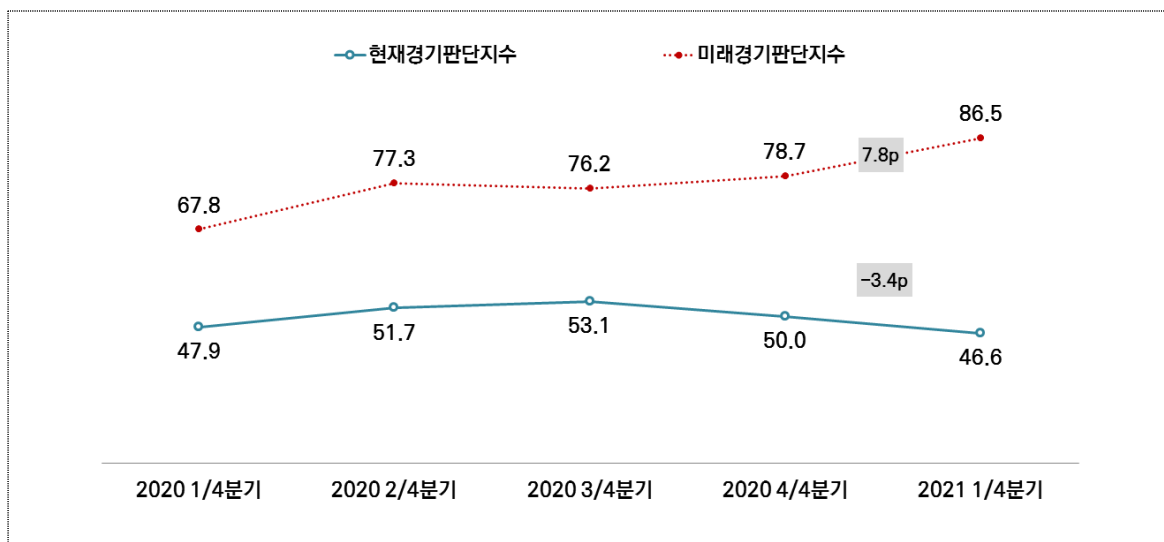
- 2021년 1/4분기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동남권이 74.6으로 가장 높은 수준
 - 동남권 다음은 서북권(73.3), 동북권(72.6), 서남권과 도심권(71.9) 순으로 나타나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
- 2021년 1/4분기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에서 서남권이 전 분기 대비 5.8p 내려 가장 크게 하락
 - 1.2p 상승한 도심권을 제외하고 모든 권역에서 「현재생활형편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
 - 서남권의 「현재생활형편지수」가 전 분기 대비 5.8p 내려 하락 폭이 제일 큰 것으로 조사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

전 분기 대비 현재경기판단지수가 하락, 미래경기판단지수는 크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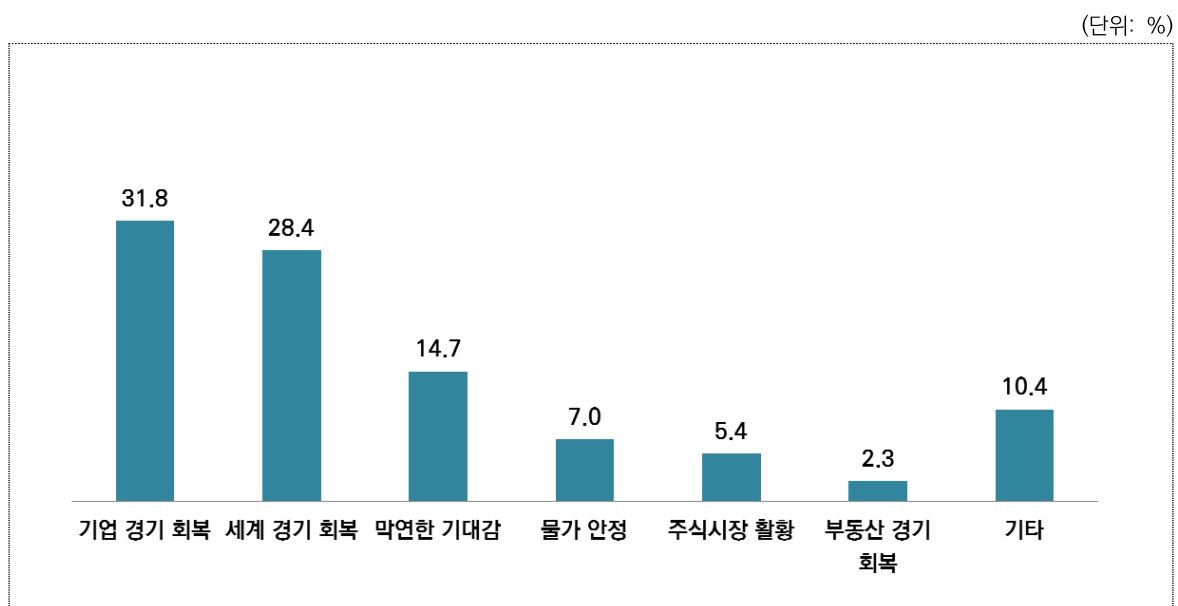
- 2021년 1/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46.6으로 전 분기 대비 3.4p 하락
 - 2분기 연속 상승을 이어오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20년 4/4분기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50대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1/4분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40대로 진입
 - 연 가구소득별 「현재경기판단지수」는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와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가 각각 6.7p 내리며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별 「현재경기판단지수」는 60대가 7.6p 내리며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하락
- 2021년 1/4분기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86.5로 전 분기 대비 7.8p 상승
 - 지난 3분기 동안 70대 수준이었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2021년 1/4분기에 7.8p 크게 상승하면서 86.5를 기록
 - 연 가구소득별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소득계층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특히 7,200만 원 이상 가구가 15.0p 올라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상승한 반면, 2,400만 원 미만 가구는 2.6p만 상승
 - 연령별 「미래경기판단지수」는 모든 연령에서 상승했으며, 50대(13.7p)와 40대(10.5p)는 각각 10p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



[그림 7]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기업경기 회복’과 ‘세계경기 회복’ 등

-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주로 ‘기업경기 회복’, ‘세계경기 회복’,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조사
 - ‘기업경기 회복’이 31.8%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세계경기 회복’(28.4%), ‘막연한 기대감’(14.7%) 순
- 소득수준과 연령대별 조사에서 대체로 ‘기업경기 회복’과 ‘세계경기 회복’을 경기 호전의 주된 이유로 지목
 - 연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기업경기 회복’ 응답이 높았지만, 2,400만 원 미만 가구와 7,200만 원 이상 가구는 ‘세계경기 회복’ 응답이 각각 40.9%, 34.8%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기업경기 회복’ 응답이 높았으며, 30대 이하에서 ‘주식시장 활황’(10.5%)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2021년 2월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9%로 전월(0.5%)보다는 높고 전년 동월 0.9%와는 동일 수준인 것으로 조사
 - 서울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0년 10월 0.2% → 11월 0.6% → 12월 0.4% → 2021년 1월 0.5% → 2021년 2월 0.9%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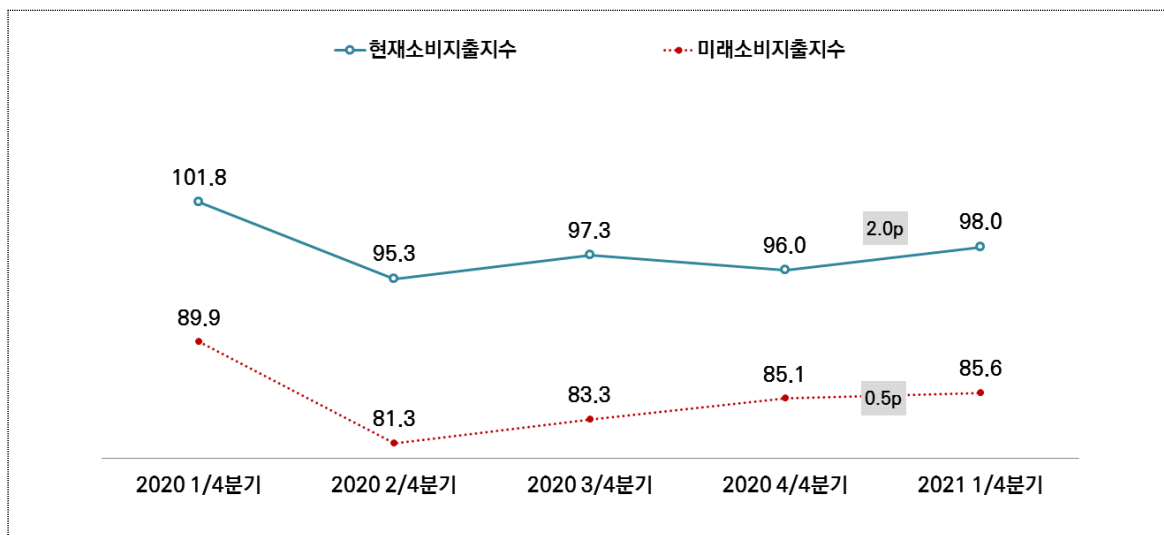


[그림 8]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

5)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등락률(KOSIS 재인용)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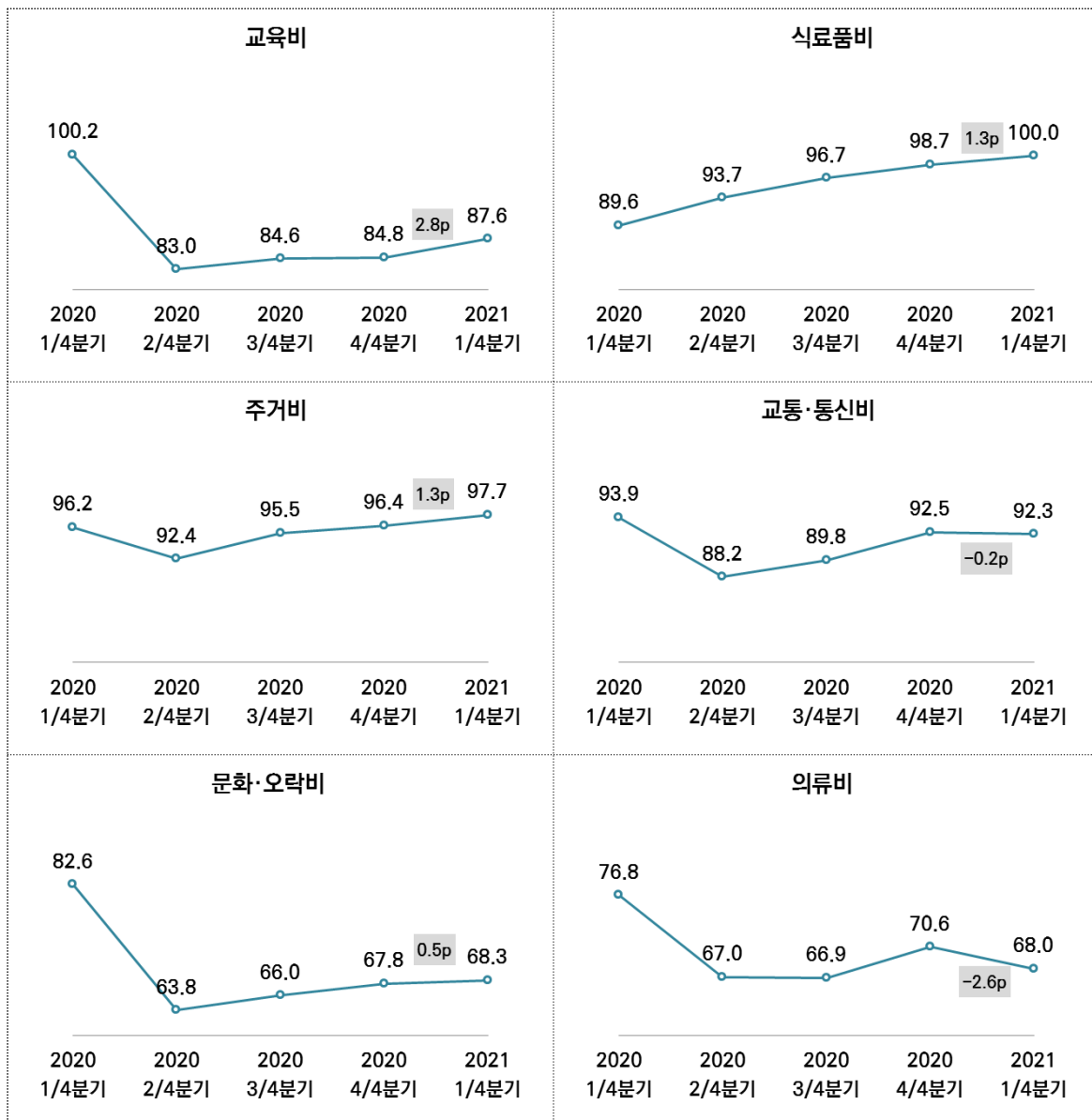
- 2021년 1/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98.0으로 전 분기 대비 2.0p 상승
 - 2020년 4/4분기에 하락세로 전환했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2021년 1/4분기에 2.0p 올라 상승으로 반전
 - 연 가구소득별로는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의 「현재소비지출지수」가 전 분기 대비 5.6p 올라 가장 많이 상승
 - 연령별 「현재소비지출지수」는 60대(8.4p)와 50대(7.4p)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
- 2021년 1/4분기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85.6으로 전 분기보다 0.5p 상승
 - 연 가구소득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2,400만 원 미만 가구가 4.2p 올라 가장 많이 상승
 - 연령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60대가 4.9p 올라 가장 많이 상승



[그림 9]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의류비와 교통·통신비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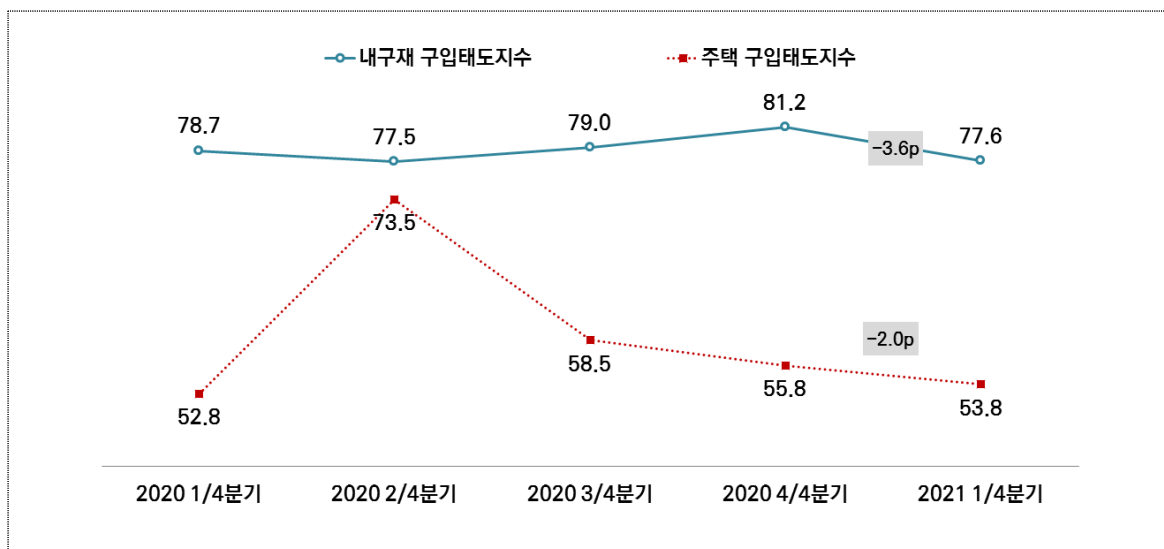
- 2021년 1/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의류비와 교통·통신비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상승
 - ‘교육비’ 지수가 전 분기 대비 2.8p 올라 전 품목 중에서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식료품비’(1.3p), ‘주거비’(1.3p), ‘문화·오락비’(0.5p) 순
 - ‘의류비’ 지수가 전 분기 대비 2.6p 감소하여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교통·통신비’는 소폭 하락
- ‘식료품비’ 지수가 가장 높게 조사
 -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식료품비’가 100.0으로 가장 높은 반면, ‘의류비’가 68.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그림 10]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의사, 주택 구입의사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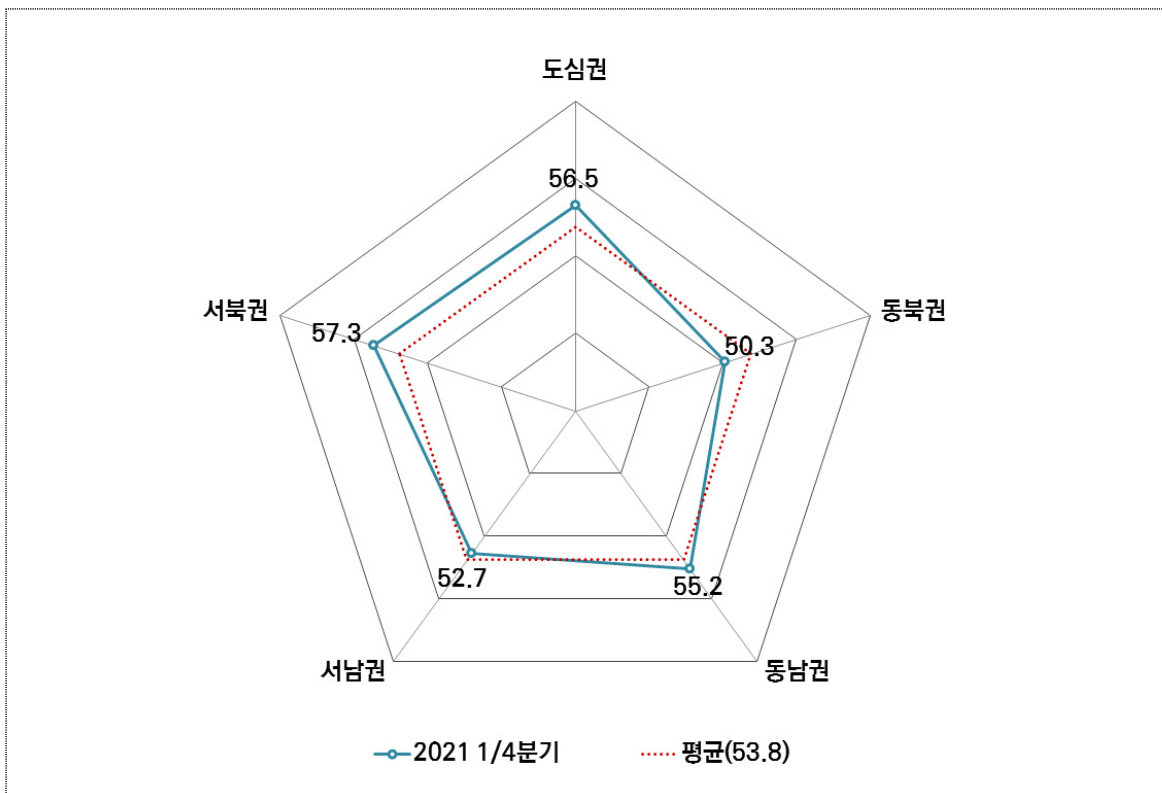
- 2021년 1/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3.6p 내려 77.6을 기록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15.7p 내려 전 분기 대비 가장 크게 하락
 -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는 전 분기 대비 3.1p 올라 유일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내구재 구입태도지수」가 전 분기 대비 6.9p 하락해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40대 가구도 6.4p 하락
 - 반면, 60대, 50대는 전 분기 대비 각각 1.7p, 1.1p 상승한 것으로 조사
- 2021년 1/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53.8로 전 분기 대비 2.0p 하락
 -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2020년 2/4분기에 급상승한 이후 3분기 연속 하락
 - 연 가구소득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2,400만 원 미만 가구(2.2p)와 7,200만 원 이상 가구(1.1p)만이 소폭 상승했을 뿐 나머지 소득계층은 하락했으며,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의 하락 폭이 5.8p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연령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40대가 4.9p 내려 가장 크게 하락했으며, 그다음은 30대 이하(-2.9p) 순으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조사
 - 반면, 50대의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0.8p 올라 유일하게 상승했으며, 60대는 전 분기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
 - 2021년 2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112.1로 정체 지속(2020년 10월 110.6 → 11월 110.8 → 12월 111.1 → 2021년 1월 111.5 → 2월 112.1)⁶⁾



[그림 11]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6)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KOSIS,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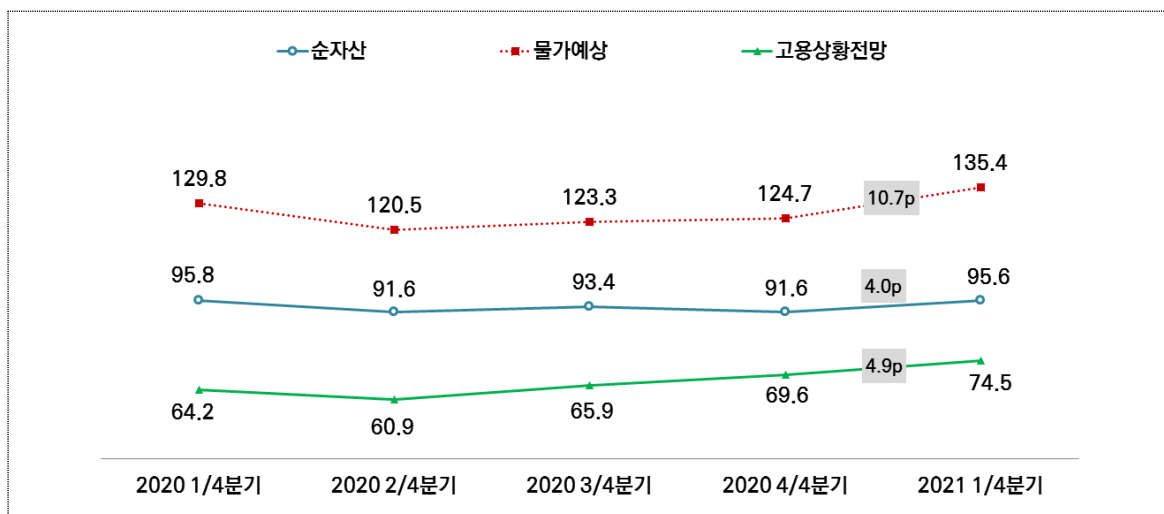
- 2021년 1/4분기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동북권이 가장 낮은 편
 -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가장 낮은 권역은 동북권(50.3)이며, 가장 높은 권역은 서북권(57.3)인 것으로 조사
 - 동북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50.3으로 전 분기 대비 6.3p 내리며, 전 권역에서 가장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조사
 - 그 외에 동남권이 전 분기 대비 2.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남권 역시 2.0p 하락
 -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상승한 권역은 도심권(4.2p)과 서북권(0.6p)인 것으로 조사



[그림 12] 서울의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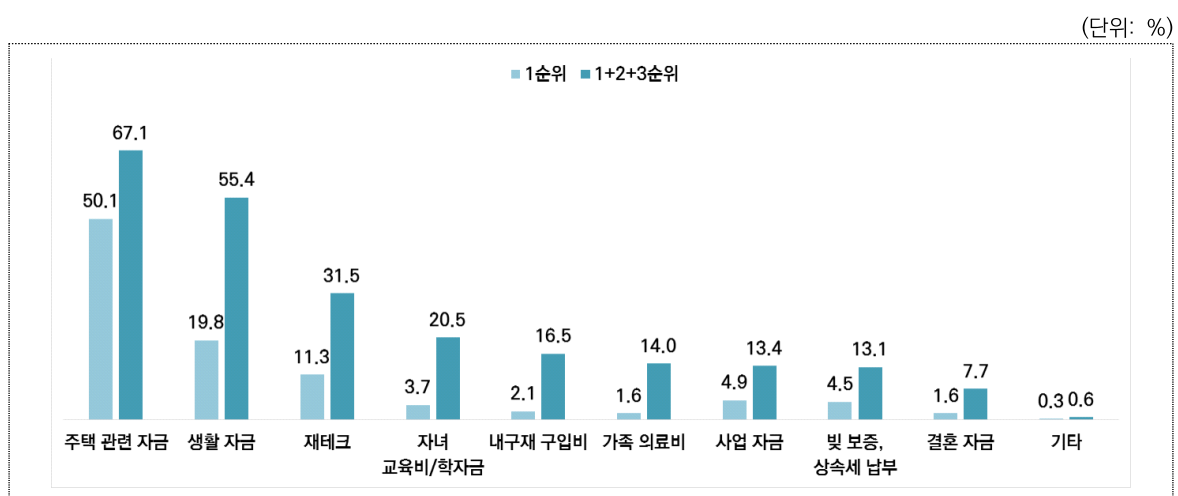
- 2021년 1/4분기 「순자산지수」는 95.6으로 전 분기 대비 4.0p 상승
 - 가계의 순자산이 증가한 이유로 ‘금융자산이 늘었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소득이 늘었다’(24.6%), ‘부채가 줄었다’(23.6%), ‘부동산이 늘었다’(20.3%)는 순
 - 연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금융자산이 늘었다’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는 ‘부채가 줄었다’가 35.5%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의 ‘소득이 늘었다’(31.3%)가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된 반면, 40대는 ‘금융자산이 늘었다’(40.5%), 50대는 ‘부채가 줄었다’(30.4%), 60대는 ‘부동산이 늘었다’(34.4%)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순자산 증가의 주된 이유가 상이
- 2021년 1/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135.4로 전 분기 대비 10.7p 상승
 - 「물가예상지수」는 2021년 1/4분기에 전 분기 대비 10.7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2020년 2/4분기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16.9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고,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전 분기 대비 18.4p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2021년 1/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74.5로 전 분기보다 4.9p 상승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21년 1/4분기에 전 분기 대비 4.9p 상승한 74.5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으로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고용상황전망지수」가 상승했으며, 2,400만 원 미만 가구가 10.7p 올라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용상황전망지수」가 상승했으며, 특히 60대가 10.0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



[그림 13]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서울지역의 가계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

- 2021년 1/4분기에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 대상 가구의 56.0%로 전 분기 대비 0.5%p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는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와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1.3%, 61.1%로 가장 높게 조사
 - 연령별로는 40대가 61.0%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30대 이하(57.8%), 50대(55.6%), 60대(47.1%) 순으로 조사
 - 가계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가구의 연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은 19.1%로 전 분기 대비 0.5%p 증가⁷⁾
 - 가계부채의 상환 형태는 '원리금 상환'이 61.8%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이자만 상환'(33.2%), '상환 안 함'(5.1%)의 순으로 조사
-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1순위 기준으로 '주택 관련 자금'(50.1%)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생활 자금'(19.8%), '재테크'(11.3%), '사업 자금'(4.9%), '빚 보증, 상속세 납부'(4.5%) 순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와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생활 자금' 비중이 각각 34.8%, 34.0%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으며, 40대가 57.3%로 가장 높게 조사
 - 1~3순위 기준 역시 '주택 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 각각 67.1%, 55.4%로 가장 높았으며, '재테크'(31.5%)와 '자녀 교육비/학자금'(20.5%)도 높은 수준



[그림 14]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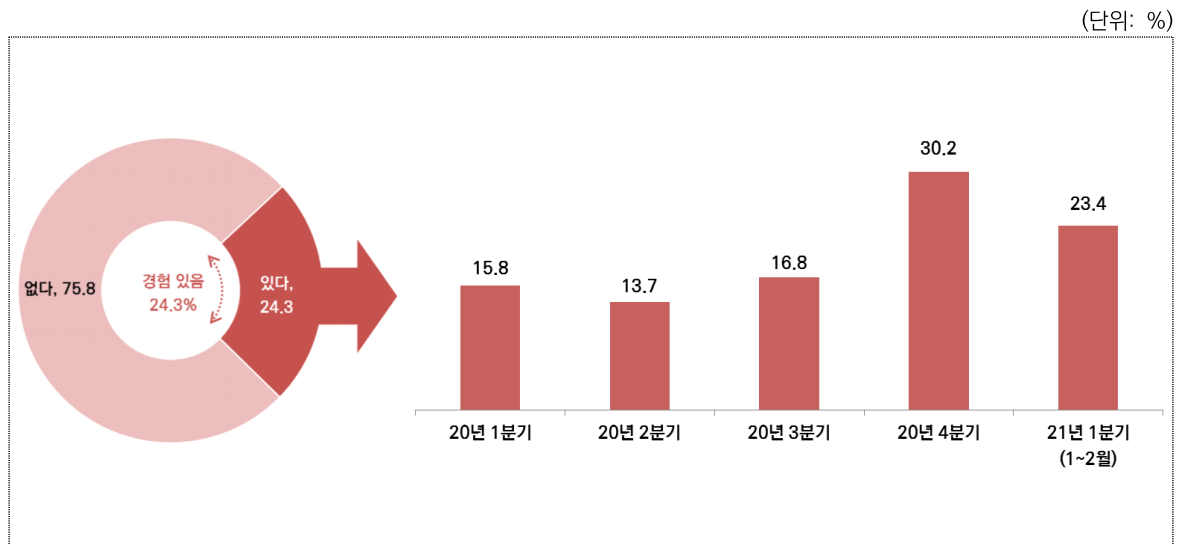
7) 2019년 4/4분기까지는 월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하였으며, 2020년 1/4분기부터는 연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하였음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보복소비

Ⅰ 서울시민 1/4이 보복소비⁸⁾ 경험, 주요 소비 분야는 ‘음식’과 ‘전자기기’

서울시민 4명 중 1명은 보복소비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코로나19에 따른 보복소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3%인 것으로 조사
 - 보복소비 최초 시기로는 ‘2020년 4분기’(30.2%)가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분기’(23.4%) 보복소비 경험자도 상당수
 - 연 가구소득별 보복소비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29.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가 31.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 보복소비 경험 시기는 대체로 ‘2020년 4분기’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나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2020년 1분기’가,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2021년 1분기(1~2월)’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2020년 4분기’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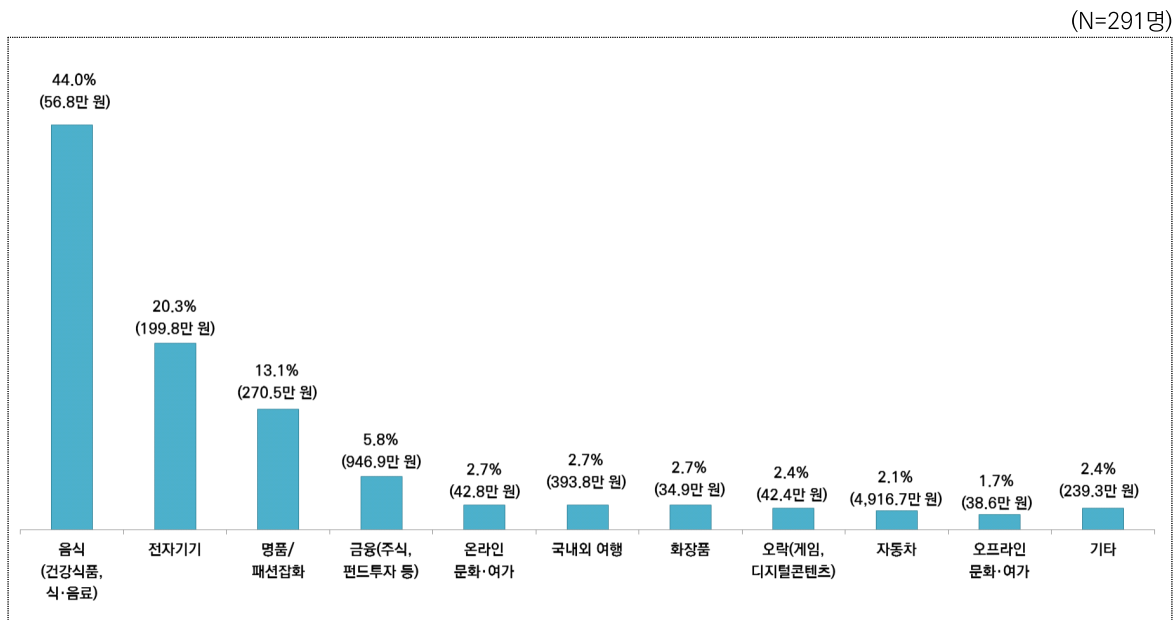
[그림 15] 서울시민의 보복소비 경험 여부 및 경험 시기

자료: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 대상 설문조사 중 1,200명 응답

8) 보복소비(revenge spending)란 질병이나 재난과 같은 외부요인 때문에 억제되었던 소비가 어느 순간 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서울시민에게 코로나19에 따른 보복소비가 있었는지를 질문하였음

서울시민의 보복소비 분야는 음식, 전자기기가 높은 비중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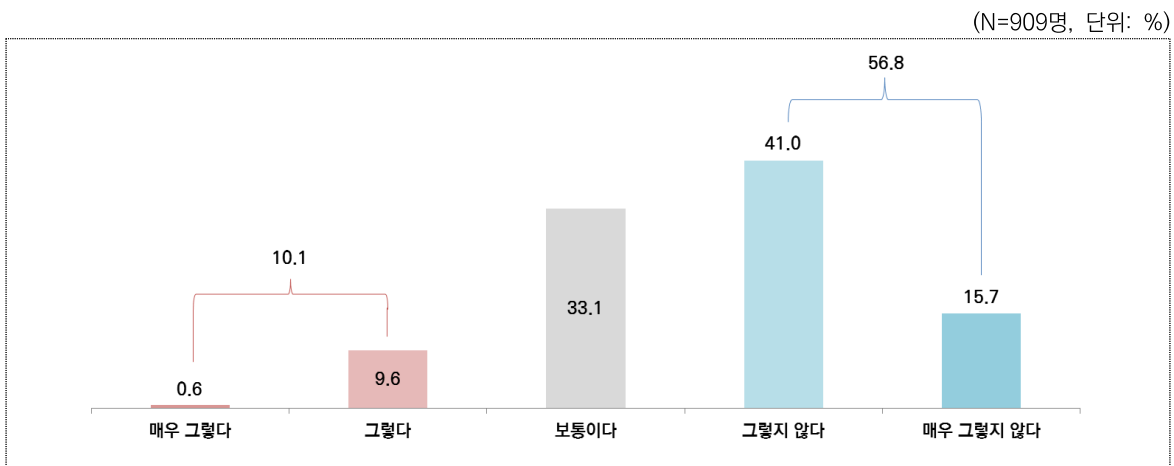
- 보복소비는 ‘음식(건강식품, 식·음료)’ 분야에 평균 57만 원, ‘전자기기’ 분야에 평균 200만 원 지출
 - 보복소비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보복소비 분야를 조사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음식(건강식품, 식·음료 등)’(44.0%)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전자기기’(20.3%), ‘명품패션/잡화’(13.1%), ‘금융(주식, 펀드투자 등)’(5.8%) 등의 순
 - 연 가구소득별로는 ‘음식(건강식품, 식·음료 등)’ 분야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는 ‘전자기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음식(건강식품, 식·음료 등)’ 분야가 절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
 - 1순위 기준 보복소비 분야별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음식(건강식품, 식·음료 등)’ 분야는 평균 56.8만 원을 사용했고, ‘전자기기’는 평균 199.8만 원, ‘명품패션/잡화’는 평균 270.5만 원, ‘금융(주식, 펀드투자 등)’은 평균 946.9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
 - 보복소비 지출금액이 가장 큰 분야는 ‘자동차’로 평균 4,916.7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금융(주식, 펀드투자 등)’(946.9만 원), ‘국내외 여행’(393.8만 원), ‘명품패션/잡화’(270.5만 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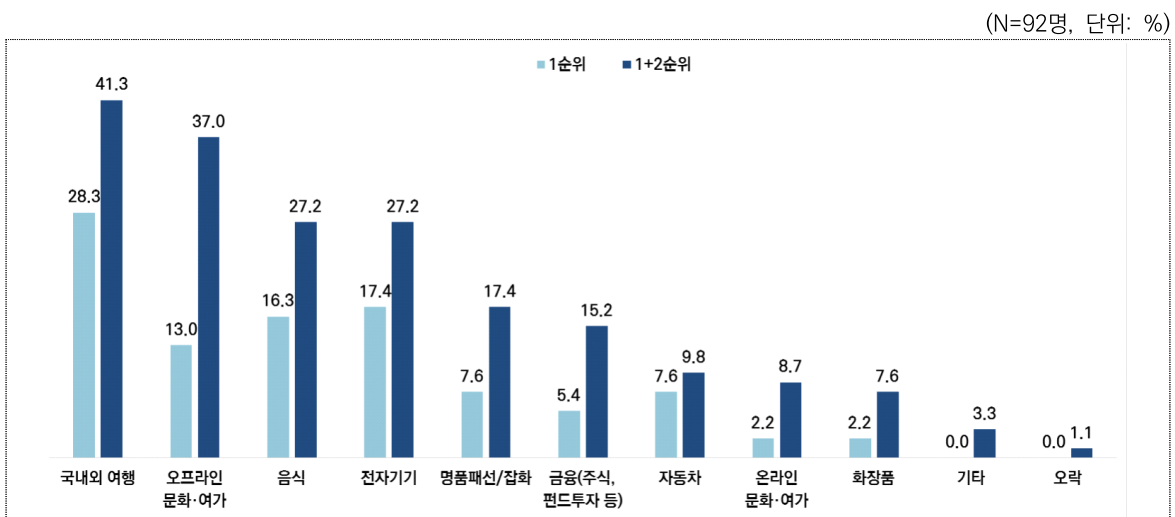
[그림 16] 보복소비 분야와 평균 지출액(1순위 기준)

앞으로 '보복소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국내외 여행'을 1순위로 고르

- 보복소비 무경험자 중 향후 보복소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1%이며, 보복소비 계획 분야는 '국내외 여행'이 1순위
 - 보복소비 무경험자에게 향후 보복소비 계획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매우 그렇다 0.6%+그렇다 9.6%)라는 응답이 10.1%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41.0%+매우 그렇지 않다 15.7%)가 56.8%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12.3%로 가장 높았으며,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61.8%로 가장 높게 조사
 - 연령대별로는 전반적으로 30대 이하에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11.2%로 가장 높았으며, 50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61.0%로 가장 높게 조사
 - 1순위 기준 향후 보복소비 계획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외 여행'의 응답률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자기기'(17.4%), '음식'(16.3%), '오프라인 문화·여가'(13.0%) 순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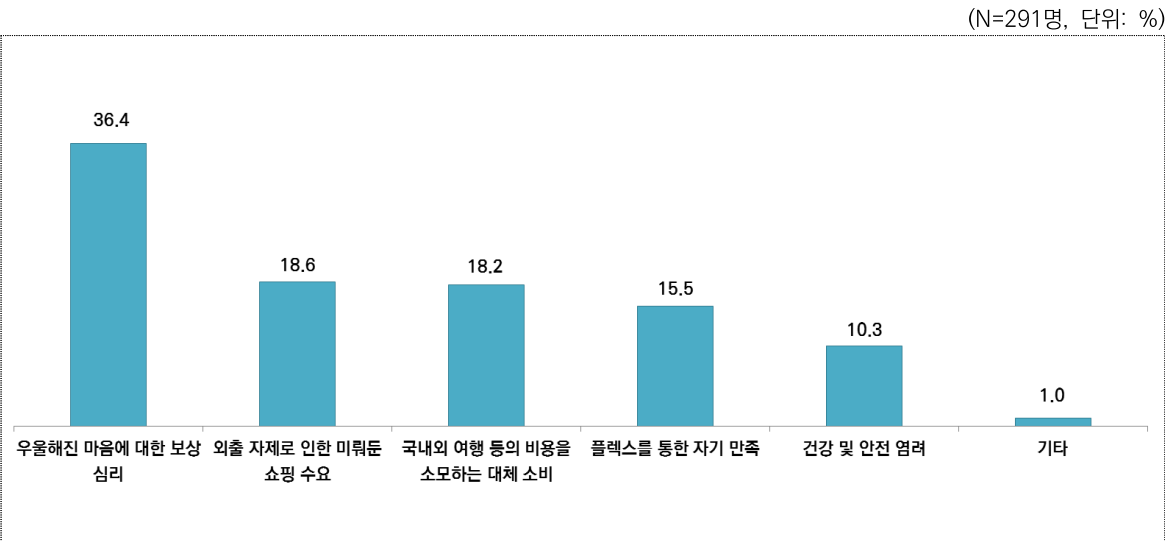
[그림 17] 향후 보복소비 계획 유무



[그림 18] 향후 보복소비 계획 분야

보복소비의 가장 큰 이유는 ‘우울해진 마음에 대한 보상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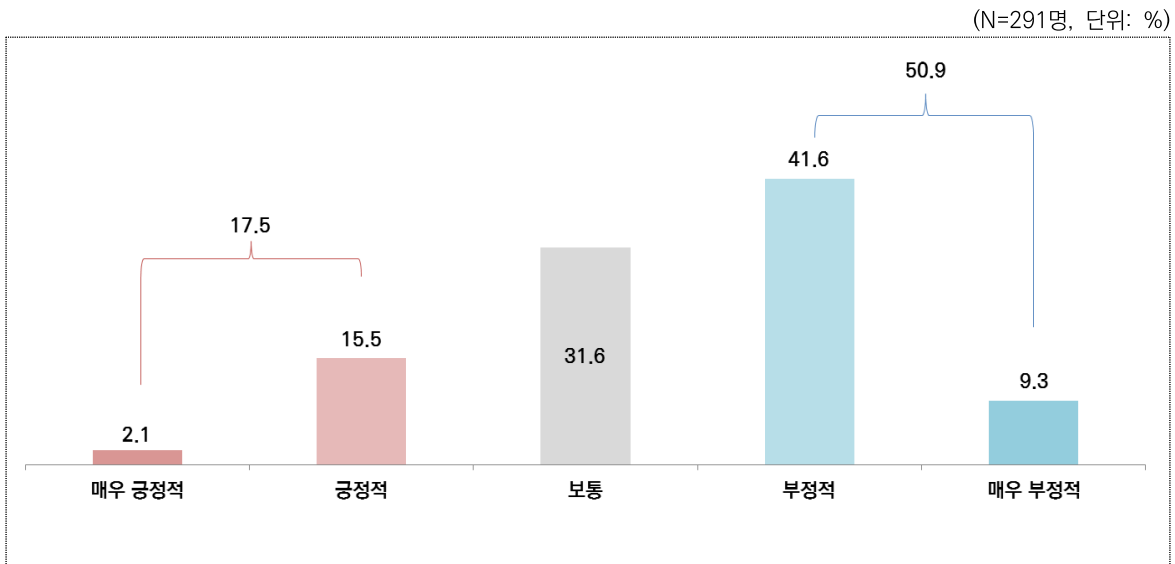
- 보복소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우울해진 마음에 대한 보상 심리’가 36.4%를 차지
 - 보복소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울해진 마음에 대한 보상 심리’(36.4%)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외출 자제로 인한 미뤄둔 쇼핑 수요’(18.6%), ‘국내외 여행 등의 비용을 소모하는 대체 소비’(18.2%) 등의 순서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우울해진 마음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연령대별로는 대체로 ‘우울해진 마음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60대는 ‘외출 자제로 인한 미뤄둔 쇼핑 수요’가 가장 높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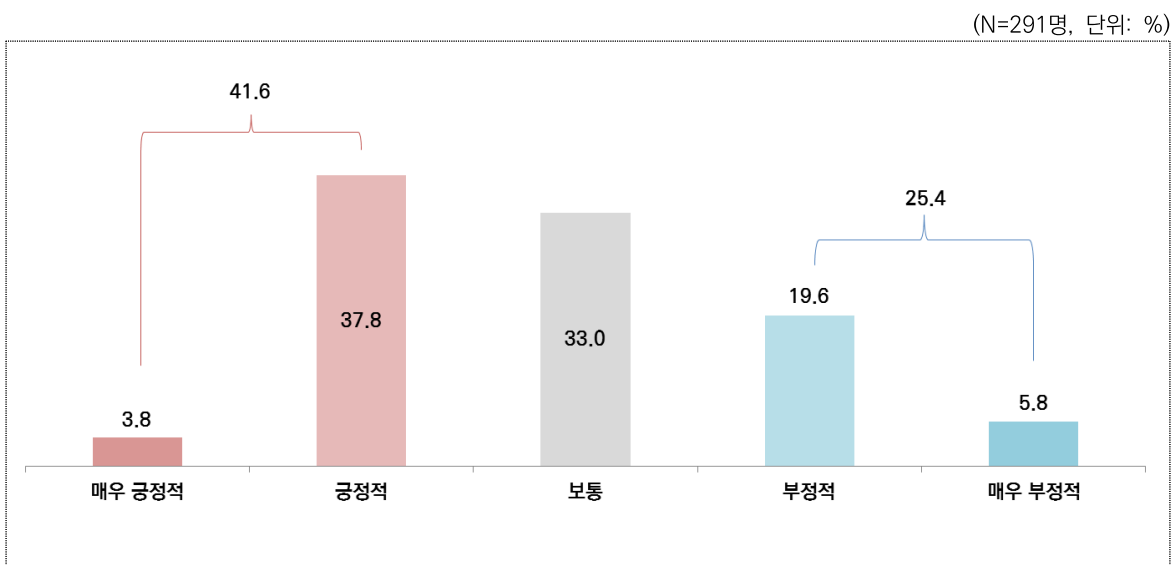
[그림 19] 보복소비 이유

보복소비가 개인의 행복 증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 보복소비 유경험자의 41.6%는 보복소비가 개인의 행복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응답
 - 보복소비가 개인의 행복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매우 긍정 3.8%+긍정 37.8%) 응답이 41.6%로 나타났으며, ‘부정’(부정 19.6%+매우 부정 5.8%) 응답은 25.4%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7,2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게 조사
 -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에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60대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34.3%로 가장 높게 조사
- 보복소비 유경험자의 50.9%는 보복소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응답
 - 보복소비 유경험자에게 보복소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긍정’(매우 긍정 2.1%+긍정 15.5%) 응답이 17.5%로 나타났으며, ‘부정’(부정 41.6%+매우 부정 9.3%)은 50.9%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7,2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27.0%로 가장 높았으며,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9.1%로 가장 높게 조사
 -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에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20.9%로 가장 높았으며, 60대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54.3%로 가장 높게 조사



[그림 20] 보복소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림 21] 보복소비가 개인의 행복 증진에 미치는 영향

부록: 2021년 1/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이 연구는 서울 기준의 분기별 조사이며, 한국은행은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
 - 한국은행의 ‘2021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7.4로 전월 대비 2.0p 상승
 - 분기별 조사라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20년 1/4분기	82.8	73.7	85.4	47.9	67.8	78.7	52.8
2020년 2/4분기	86.1	72.4	91.3	51.7	77.3	77.5	73.5
2020년 3/4분기	87.9	74.4	93.2	53.1	76.2	79.0	58.5
2020년 4/4분기	89.4	75.8	93.9	50.0	78.7	81.2	55.8
2021년 1/4분기	89.0	72.9	96.0	46.6	86.5	77.6	53.8

*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20년 1/4분기	101.8	89.9	95.8	64.2	129.8
2020년 2/4분기	95.3	81.3	91.6	60.9	120.5
2020년 3/4분기	97.3	83.3	93.4	65.9	123.3
2020년 4/4분기	96.0	85.1	91.6	69.6	124.7
2021년 1/4분기	98.0	85.6	95.6	74.5	135.4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3\%p$ 임 (2021년 1/4분기 조사 시점은 2021년 2월 26일~3월 5일)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